

‘광주형 일자리’ 청년들의 꿈 이뤄질까

광주시-현대차, 오늘 투자협상 재개 ... 대한민국이 ‘주목’
예산심의 끝나는 이번 주 내 타결 못하면 사업추진 불가

광주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제조업 및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패가 이번 주에 갈린다.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이번 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민선 7기 시정, 미래 광주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사안으로 보고 협상 타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투자협상단이 26일부터 서울에서 현대차와 투자 협상을 재개한다.

광주시가 현대차와 기존에 작성한 투자협약서를 수정해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지역노동계와 작성한 합의문에서 명시한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기타 합의 사항 등이 결렬되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를 줄여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상단은 25일에도 현대차의 입장과 지역노동계의 처지를 반영할 수 있는 투자협약서 수정안 마련을 위해 내부 논의를 계속했다. 투자협약서에 명시할 사안과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다시 논의·수정해야 하는 사안을 구분해 현대차를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국회 예산 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협상중심시와 현대차의 압박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통 큰 양보와 고충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광주시와 현대차를 향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합의가 안되면 다른 곳, 원하는 데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 일각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지 않으면 국

산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병훈 부시장은 “이번 협상이 향후 광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노동 등의 분야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노사민정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 이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빛그린산단 내 62만 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SUV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다.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윤현성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세계수영 성공 기원 고싸움 놀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고싸움놀이 축제가 25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참가한 고싸움놀이보존회 회원들이 고싸움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국립 ‘축산자원개발부’ 합평에 등지 튼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9천억 들여 이전...183명 근무

축산 관련 연구 전문기관인 축산자원개발부가 합평에 등지를 틀 전망이다.

전남도는 25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성환중축장) 이전 후보지 공모 결과 단독응모한 합평군이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합평군은 공모심의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4일 이뤄진 1차 서류심사는 정주 여건, 접근성, 편의성, 초기 사료 연구 적합성, 방역 적합성, 연계성, 형평성, 지자체 지원 및 개발 용이성 등과 19개 세부항목을 평가했다.

합평군은 초기 사료연구에 적합한 완만

한 경사 등 입지 조건, 필수면적 확보, 구제역 청정지역, 지자체 지원 계획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1일 선정위원·발주처·주관사 관계자가 합평군 후보지를 현장 실사했고, 22일에는 프레젠테이션과 질의답변으로 심도 있는 검증을 거쳤다.

국립축산과학원 선정위원 전체회의는 입지 여건, 이주 직원-이주민의 주거 생활

안정 대책, 각종 인허가 등을 살펴 이전 후보지 우선협상대상자로 합평군을 최종 선정했다. 전남도와 합평군은 내년에 이전준합계약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해 2022년부터 예산 확보 및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전 소요 예산은 9000억원이다.

한편 충남 천안에 있는 축산자원개발부는 가족 개량·초지 사료 개발·스마트축산 등을 연구한다. 가족개량평가과, 낙농과, 양돈과, 초지사료과 등 4개 부서에 183명이 근무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최진석



엄홍길



김정운



박정자



전유성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 7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내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 7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를 제

공합니다.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문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19년 3월~2019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 30분 (호텔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1월 31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개별문의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광주일보

광주일보

아이가 꿈이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시나요 ▶18면

50m 드리블 토트넘 50호 골

- 손흥민 "믿을 수 없는 밤"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채무조정·서민대출·복지·주거상담을 한 곳에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
하시는지!

- ☑ **채무조정 상담**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저소득·
저신용으로
대출이
힘드신 분!

- ☑ **서민대출 상담**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대출
골목상권특례보증대출
빛고을론

복지·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

- ☑ **복지주거 상담**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영구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매입임대 지원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차평동) 시청 1층 민원실



(062) 613-6700~3